

자기 백성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개역, 레위기 2:1~3]

우 리들 중에는 이웃이나 다른 식구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 사람이 끄는 게 맞지요? 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끄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는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혹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스위치를 켜 사람이 나갈 때 꺼주고 나가는 게 좋겠다 싶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양말을 벗으면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보통은 양말이 빨래 통에 잘 안 가요. 그래서 벗어 놓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치우는 것이 괜찮다 싶는데 대체로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과자깍데기, 깡통 그대로 놓아두고 가 버립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집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싸움이 잘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이야 어떻게 되건 내 차만 대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만 배려해주면 될 텐데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런 셈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도 남의 입장을 그렇게 잘 배려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군대에서 작대기 세 개하고 작대기 한 개는 차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작대기 하나인 시절에 한 사람이 앞장서서 청소를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앞장서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작대기 세 개 단 고참이 담배를 뽕뽕뽕 피우다가 담배를 던집니다. 청소 하는 앞쪽에 던질까요, 청소 다 한 뒤쪽에 던질까요? 담배를 피우고는 다 쏘고 담배는 뒤쪽에다 퍽 던져 놓습니다. 작대기 세 개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높은 자리라고 밑에 있는 졸병 생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졸병시절에 어떻게 하다가 야근을 하는데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했는데 주로 장군들이 있는 건물이라서 화장실이 잘 안 보였습니다. 화장실 찾느라고 문을 살짜기 열어보면 빨간 별판이 보입니다. 잽싸게 닫고 또 다른 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변기가 세 개 있었습니다. 장관용, 장군용, 그 옆에 1사관용, 그 다음에는 없어요. 작대기 달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으리으리한 화장실에서 급하게 일을 보고는 도망치듯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높은 사람들은 밑의 졸병들을 위한 생각이 전혀 없나!'

군대에서 높은 사람은 무시무시하게 두렵습니다. 이런 군대에서 별을 단 장군이 어느 교회 앞에서 정복을 갖춰 입고 주보를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난리가 나는 거죠. 감동도 보통 감동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얼마나 큼니까? 높고 높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해야 될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군에서 작대기 달고 대령, 중령을 만나 보면 사람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있던 사무실에 중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밑에 대위가 둘 있습니다. 그 옆에서 작대기 단 사병들이 서 너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별을 단 참모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령을 소령이 붙입니다. 처음에 '차렷' 하기에 저도 차렷 자세로 있었더니 옆에 있던 고참이 '야 앉아' 하는 겁니다.

소령이 구령을 붙여도 작대기 단 사병들은 차렷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누가 왔는지 신경도 안 쓰

고 일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별을 단 참모장께서 작대기 달고 있는 사병들은 거들며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렷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병은 사람도 아니네?' 인사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계급사회 계급사회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장군님이 들어오시는데 작대기들이 꿈쩍도 안 해요? '인간도 아니니 너희는 그냥 일해' 이런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 높으신 장군님께서 졸병들을 생각해 주고 배려한다면 정말 놀라울만큼 감격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하다는 이 인간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물에 따라서 제사를 분류하면 번제와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울 번'자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다는 일천 번제 있죠? 읽을 때 가끔은 '일천번 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일천 번제'입니다. 몇 번을 드렸냐고요? 잘 모릅니다. 어쩌면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드린 짐승의 수가 일천 마리라는 뜻입니다. 번제인데 짐승을 천 마리나 드렸기 때문에 '일천 번제'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자가 '흰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제사라는 뜻입니다. 왜 하얀 제사입니까? 곡식을 빵아서 가루를 드리는 제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이라고 그러는데 이 '드리려거든'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드리라고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드리려거든입니다. 마음에 안 내키면 안 드려도 된다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를 자원해서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사를 드리려거든, 싫으면 안 드려도 괜찮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번제나 2장에 나오는 소제는 전부 자원제입니다. 뒤편에 가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도 물론 나오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도 중요합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제사도 필수적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보다도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기본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이나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게 창조하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비슷하리라고, 아니면 사람도 짐승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짐승이 하나 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짐승과 전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와 의무감에서 순종할 때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야, 아빠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냐?' 아이들에게 은근슬쩍 압박을 넣었습니다. 아이가 선물 하나 사다 드리면서 속으로 '좋다. 내 생일날 되거든 한번 보자!' 부자지간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겉으로는 선물을 주고 받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안 쌓입니다. 덜 피곤하고 일도 잘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고 말 잘 듣는 척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에 탈이 나기 아주 쉽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과목 성적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아지게 되고 열심히 해도 피곤치 않고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관계에 기뻐서 하는 일은 참 쉽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

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드리려거든’이라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한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리려거든이라고 했으니까 드릴 수도 있고 싫으면 안 드릴 수도 있다는 뜻인데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러시거든요. 이 말은 다른 예물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또는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곡식을 예물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소제를 드릴 수도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선물을 할 때에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자기 좋아하는 걸 사 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합니다. 이런 선물은 받아서 기쁘죠? 기쁘긴 기쁘도 조금 곤란합니다. 뒷처리가 잘 안됩니다. 아이가 사 왔으니 입기는 입어야 되겠는데 입고 나가기는 참 곤란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놔 두려니 걸리적거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거금을 드려서 장난감 같은 병풍을 하나 선물로 사 드렸습니다. 접으면 필통만한 겁니다. 애들이 돈을 좀 많이 주고 사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사다 드리면 ‘이거 얼마 줬냐?’ 하며 잔소리 하시는 분인데 차마 손자들이 사 오니까 말을 못하시더라구요. 옆에서 보니까 끄끄 앓아요.

‘얘들이 돈을 많이 줬을텐데... 저걸 뭐 하러 사와 가지고...’ 그런데 끝내 못 버리는 것 있죠. 아직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 편할 겁니다. 아이들 선물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을 접어놓고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선물을 사 오게 됩니다. 그게 자라난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형편, 내 취향, 내 생각대로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편을 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형편을 감안해서 내가 알아서 선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배려인지를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필요하니까 내놔라’ 그래도 꿈쩍없이 다 드려야 될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형편에 맞게 드리든지 말든지 이걸 드리고 싶으면 이걸 드리고 저걸 드리고 싶으면 저걸 드리든지 우리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짜 신들, 다른 신들이 제물을 바치라고 한 얘기와 비교해 보세요. 제물을 깎아주는 신 보셨습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섬기도록 하는 신을 보셨어요? 어릴 때 전 제일 원망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뛰어들어야 했습니까? 공양미 삼백석, 그것 좀 깎아주면 안됩니까?

이런 가짜 신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떨 때는 잔인하고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세심하게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우리 형편을 고려한 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곡식을 드리려면 추수한 다음에 그냥 들고 오면 안됩니다.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1절 뒤편을 보세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잖아요? 곡식을 가져오려면 그냥 가져오면 안되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려면 유향을 넣은 고운 기름가루를 드려야 합니다. 하얀 가루가 주된 제물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섞은 것이 고운 기름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하얀 가루와 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셔진 것입니다. 고운 가루란 원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도

룩 삭삭 갈아 뺀아진 것을 말합니다. 기름은 짜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어떻게 짜는지 아시죠? 얼마나 눌러서 짹니까? 옛날에 제가 기름으로 쓰려고 깻묵을 하나 사 왔는데 안 깨지데요. 망치로 두들겨도 안 깨집니다. 얼마나 깨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억지로 두들겨 깨서 단지에 넣어 놓았는데 이게 나중에 붙으니 까 양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를 수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질 때는 곡식 알갱이가 완전히 형체도 없이 갈아지듯이, 씨앗이 눌리고 눌러 완전히 기름으로 짜지듯이 그렇게 깨어지고 일그러진 상태로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습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버리고 완전히 갈아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는 뜻에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개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드러봐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태워서 없애는 것인데도 굳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따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기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깨지셨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부서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철저히 깨어졌는데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루를 삭삭 갈아가지고 정말 고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운 가루는 바람에 날려가기 쉽습니다. 불완전 하잖아요?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로 뭉쳐야 제사 드리기에 적합해집니다. 기름은 성령에서 종종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된 성도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드러질만한 제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성질, 내 고집 이런 것이 깨끗이 사라져야 하나님께 바람직합니다. 나 혼자 잘 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가루가 되고 거기에 기름이 더해져서 한 덩어리가 될 때 하나님께 드러질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절 중간쯤에,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념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가령 결혼 몇 주년이 되었다, 생일이 되었다 하면 외식을 하거나 선물을 주는 바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아나? 이런 사이에서는 결혼기념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만 쳐다보면 ‘세상에, 세상에, 저런 원수가 어디 있나?’ 그럴 때 생일이 무슨 축하할 일이 되겠습니까?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것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념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아 오늘 또 수요일인가?’ ‘또 교회 가야 하나?’ 이래서 예배드리러 나온다면 얼마나 불쌍한 성도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우리의 삶 자체가 감격스럽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 래야 예배드리는 자세가 제대로 된 겁니다.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념할만한 추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물들은 대체로 양이 적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해 준, 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자이니 가진 것 다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 놓아야지요. 그런데 다 내 놓으라가 아니고 ‘기념물로 드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기념물입니다. 기념할 정도로만 드러라는 겁니다. 외국에 여행을 갔다오는 사람이 무엇을 사오면 되지요? 기념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제사를 드리고, 이거 가져오라’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념물로 받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기념물을 일일이 다 받아 놓으시면 귀찮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념물로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는 참외씨에다 실을 꿰어서 만든 목걸이가 있습니다. 보관한지가 15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다 씌니까? 그런데 그걸 선물이라고 준 녀석을 생각해서 그걸 아직도 옷장 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쓴 엽서, 카드, 편지를 얼마나 많이 없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석구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버리려고 하다가 차마 못 버려서 또 넣어놓습니다. 이게 살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념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주변에 무슨 기념물이 있나 싶어서 꼭 봤습니다. 보니까 이탈리아산 손수건, 포르투갈의 항구모습을 그려 놓은 도자기, 유럽지도,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물컵, 사탕통, 등대모형...

이런 것들이 제 책상 주변에 꼭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치우려다가도 ‘저건 누가 준건데’ 해서 못 치웁니다. 기념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필요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탐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어 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기념물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드린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념물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터인데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드려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약간을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다른 생업을 가지지 아니한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것일까요? 3절을 보세요.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2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거룩한 것이니 다른 사람은 절대 손을 못 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탐을 내거나 얻어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고 살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거룩한 제사장만 먹도록 한정시켜 버리는 거죠.

제사장은 다른 것 못 먹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것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죠?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어야 합니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살던 이웃들이 불쌍해서 양식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건 우리 양식이 아닙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한정시켜 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이런 참극이 일어난다? 제사를 안 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목숨을 담보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장치한 겁니다.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보이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의 희생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희생이 아

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지 말지, 제물도 이것을 드릴지 저것을 드릴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서도 많은 것을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더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들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임금님 사위는 참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부인이 공주잖아요? 공주님 앞에 양말 벗어서 던져 놓겠습니까? 공주님 보고 자다가 물 좀 떠오라고 옆구리 콧코 찌를 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부인이 공주라고 생각되면 함부로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인이 공주라면 함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려해주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얼마나 인생이 귀하고 귀한 존재였으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레위기가 재미없다고요? 읽어보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평생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책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었던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예배시간에 어디 댄 곳에 가겠어요? 예배를 향해 나아오는 발걸음에 이런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배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종에게도 일시키지 말고 짐승에게도 일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선거에 꼭 참석하라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선거하라고 공휴일로 지정을 해 놓았더니 선거는 안 하고 보따리 싸서 놀러 가더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앞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이 “죽여야지요!” 그래요. “그래 말 잘했다. 예배 드리라고 일하지 말라 했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 말로 하면 ‘죽여야지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의 참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절절이 새기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